

보도시점 2023. 10. 27.(금) 08:00 배포 2023. 10. 27.(금) 08:00

조수미 씨에게 금관 문화훈장... 50주년 맞은 문화훈장 15명 수훈

- 10. 27. 장애예술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에서 시상식 개최
-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에 임윤찬, 장한 어버이상에 양희은, 양희경 어머니 등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32명 선정
- 유인촌 장관, “예술인들이 자신의 꿈을 꽃피울 수 있도록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023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로 ▲‘문화훈장’ 수훈자 15명,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수상자 5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자 7명,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문체부 장관 감사패)’ 수상자 5명 등 총 32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유인촌 장관은 10월 27일(금) 오후 2시, 모두예술극장(서울 충정로)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해 유공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축하 인사를 전한다. 특히 이번 시상식은 장애예술 관련 수상자와 가족 등이 많이 참석함에 따라 지난 24일(화) 국내 최초로 개관한 장애예술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을 개최 장소로 정했다. 모두예술극장은 누구나 문화를 향유하고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최고로 높인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다. 시상식에서는 장애예술인이 국악 축하공연도 펼친다.

금관 1명, 은관 3명, 보관 5명, 옥관 6명 등 총 15명 문화훈장 수훈

문체부는 문화의 날(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계기로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1969년부터 매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1973년에 제정된 문화훈장이 50주년을 맞는 해로 그 수상의 의미가 어느 해보다 크다.

가장 큰 영예인 금관 문화훈장은 성악가 조수미 씨가 수훈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성악가이자 케이(K)-클래식 선구자로서 38년간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공적을 인정받아 금관 문화훈장을 받는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서 ‘금관’은 그중 최고 등급으로 해당 분야 개척자나 원로급에 수여한다.

은관 문화훈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24호 궁중채화 보유자로 60여 년간 <조선왕조실록> 기록에만 현존한 ‘조선왕조의 의례’를 연구 복원하고, ‘한국궁중꽃박물관’ 설립 등으로 한국궁중예술 전승 발전에 기여한 전통 공예가 황을순 씨, ▲40여 년간 전국 각지를 돌며 한국의 토속 음악을 소재로 한 활발한 작곡과 방송활동을 통해 국악이 동시대와 어우러지며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창작품 및 녹음자료 등 8천여 점을 국립국악원 아카이브에 기증한 국악작곡가 고(故) 이해식 씨, ▲평생 춤 외길을 걸어온 전통무용가로 ‘승무’, ‘살풀이춤’, ‘태평무’ 등 전통춤을 계승하고 국내외 활발한 작품활동을 통해 폭넓은 예술세계를 펼치며 한국무용 발전에 기여한 무용가 정승희 씨 등 3명이 받는다.

보관 문화훈장은 ▲2018 평창 패럴림픽 개회식 문화공연 <공존>으로 한국예술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무용제를 창설하는 등 장애예술 발전에 기여한 최영목 (사)빛소리친구들 대표, ▲서울예술재단과 한국국제아트페어(KIAF)를 설립해 한국 현대미술의 세계화에 기여한 표미선 ‘표 갤러리’ 대표, ▲50여 년간 국내외를 아우르는 활발한 작품활동을 통해 현대회화의 지평을 넓히고 한국미술의 세계화에 기여한 오수환 서울여대 명예교수, ▲한국 현대도예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독자적인 추상 도자 세계를 구축하고, 한국 공예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한 강석영 전 이화여대 명예교수, ▲60여 년 동안 150여 편의 연극에 출연하고 세계연극제 참가로 한국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기여한 박광웅 전 (사)한국연극협회 이사장 등 5명이 받는다.

옥관 문화훈장은 ▲30여 년간 한국도서관협회에 근무하면서 국민의

도서관문화 창달에 기여한 고(故) 이현주 전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2003년 한미사진미술관을 개관해 133회 전시, 20여 년간 사진작가 창작·전시활동 등을 지원해 대한민국 사진문화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한 송영숙 (주)한미약품그룹 회장, ▲20여 년간 향토문화의 개발·보급 및 민속축제 행사 주관 등으로 문화예술향유 기회 제공에 기여한 박문태 울산중구문화원 원장, ▲42년간 시조를 창작하고 제주지역 문학저변 확대에 기여한 고(故) 오승철 전 한국문인협회 제주도지회장, ▲중증의 장애 속에서 장애예술인 정책 개발과 권익 증진, 장애인문학 발전에 기여한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40여 년간 ‘서울창업허브’ 등 공공건축물과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등 다수 예술건축물을 설계해 한국건축 문화 발전에 기여한 박제유 (주)제이유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등 6명이 받는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이배 작가 등 5명에게 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은 ▲문화일반 부문 박선자 (사)강릉예총 회장, ▲문학 부문 윤후명 소설가, ▲미술 부문 이배 작가, ▲음악 부문 작곡가 겸 피아노 연주자 박창수 더하우스콘서트 대표, ▲연극 부문 최용훈 극단 작은신화 대표 등 5명에게 수여한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상금 각 1천만 원을 수여한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피아니스트 임윤찬 등 7명 선정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은 7개 부문에서 예술가 7명을 선정했다. ▲문학 부문에는 시인 유희경, ▲공예디자인 부문은 공예가 정다혜, ▲건축 부문에는 건축가 강우현, ▲음악 부문은 피아노 연주자 임윤찬, ▲국악 부문에는 국악인 안은경, ▲연극 부문에는 연출가 이철희, ▲무용 부문에는 안무가 김정훈 등 7명이 수상한다. 이들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과 함께 상금 각 5백만 원을 수여한다.

예술가의 장한 아버지상, 양희은·양희경 어머니 등 5명 선정

자녀를 훌륭한 예술가로 키운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로는 ▲장애예술인 국악가 이지원 씨의 어머니 곽진숙 님, ▲연극 연출가 민준호 씨의 아버지 민겸식 님, ▲국악인 위희경과 가수 위일청의 어머니 서춘자 님, ▲가수 양희은과 배우 양희경의 어머니 윤순모 님, ▲장애예술인 정은혜 작가의 어머니 장현실 님 등 5명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문체부 장관 명의 감사패와 함께 각 3백만 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한다.

유인촌 장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서른두 명의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을 통해 마음껏 자신의 꿈을 꽃피울 수 있도록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해 국민이 문화로 행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포상 대상자 세부 공적 내용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도영 (044-203-2711)
		담당자	사무관	박은영 (044-203-2725)



□ 문화훈장 : 15명

훈격	성명(생년)	주요공적
금관	 조수미 (본명 조수경) (19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및 직위 : 성악가 ○ 주요 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성악가로 1986년 국제 오페라 무대 데뷔 이후 만 30세 이전 동양인 최초 국제 7개 콩쿠르 석권 및 세계 5대 오페라 무대 정복 등 38년간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하며 대한민국 클래식 위상과 국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는 K-클래식의 선구자로 2002 한·일 월드컵부터 2030 부산엑스포까지 홍보대사를 재임하며 국위 선양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
	 황을순 (19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및 직위 : 전통공예가 ○ 주요 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공예작가 및 국가무형문화재 제124호 궁중채화 보유자로 60여년간 일제의 한국문화 말살 정책으로 조선왕조실록 역사의 기록에만 현존한 '조선왕조의 의례'를 연구 복원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한국궁중꽃박물관' 설립 및 '한국궁중채화연구소' 개원, APEC 정상회의 특별전<조선왕조궁중채화전>(2005), UN본부<한국전통공예특별전>추품(2007) 등 국내외 전시를 통해 한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
은관	 故이해식 (1943~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및 직위 : 前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 주요 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악작곡가로 한국의 토속적인 음악 재료를 소재로 활발한 작곡활동 및 저술활동, 방송활동을 펼치며 동시대와 어우러질 수 있는 국악예술발전에 기여하였으며, 40여년동안 전국 각지에서 녹음한 음향자료와 사진 자료, 자신의 창작곡이 담긴 음향자료 약 8천여점을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에 기증하여 과거의 음악 유산 공유 및 연구, 공공문화자원 활성화에 기여함
	 정승희 (19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및 직위 :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 주요 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 춤길만 걸어온 대한민국 최고 전통무용가로 '승무', '살풀이춤', '태평무' 등을 사사받아 전통춤 계승과 창작춤의 폭넓은 예술세계를 펼치면서 무용 발전에 이바지하고, 미국, 일본, 홍콩 등 해외공연을 통해 한국전통 춤을 세계에 알리고, 2022년에는 <77 정승희, 춤의 여정-춤의 노래> 작품을 공연하는 등 최근까지도 왕성한 작품활동을 이어가며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함
보관	 최영목 (19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및 직위 : (사)빛소리친구들 대표 ○ 주요 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과 예술정책 개발에 기여하였으며, 다양성 예술 활약 범위를 넓혀 장애인예술의 가치를 우리사회와 공유함과 동시에 평창패럴림픽 개회식 문화공연 <공존>으로 한국예술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장애인 국제무용제를 창설하여 장애인무용예술 발전에 기여함

훈격	성명(생년)	주요공적
보관	 표미선 (19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및 직위 : 표 갤러리 대표 ○ 주요 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년간 화랑운업을 통한 작가 양성, 미술시장의 저변확대에 기여하였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시장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의 설립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을 세계에 알리고, 서울예술재단을 설립하여 청년작가와 미술품 고객을 연결하는 플랫폼 운영으로 청년작가들 작품활동 지원에 기여함
	 오수환 (19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및 직위 : 서울여대 명예교수 ○ 주요 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여년간 국내외를 아우르는 작품활동을 전개하며, 선(線)의 요소에 기반을 둔 동양적인 화법과 사유를 서양의 유화기법으로 풀어냄으로 서양화를 가장 동양적으로 풀어내는 추상화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세계를 넘나드는 활발한 작품활동으로 국내 현대회화의 지평을 넓히고 한국미술의 세계화에 기여함
	 강석영 (19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및 직위 : 前 이화여대 명예교수 ○ 주요 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예가로 30여년간 활동하며 시대적 유행이 아닌 새로운 실험에 몰두하여 자신만의 제작방법과 기법을 연구하고 한국 현대도예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독자적인 추상 도자 세계를 구축하였으며, 국내외 활발한 전시 활동을 통해 한국 공예의 세계적 확산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
	 박광웅 (*예명 박웅) (19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및 직위 : 前 (사)한국연극협회 이사장 ○ 주요 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여년 동안 150여편의 연극에 출연하며 선 굵은 연기로 동시대 관객들에게 인상깊은 연기를 펼치고 있는 연극배우로 세계연극제에 참여하여 한국문화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리며 연극을 통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사)한국연극배우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배우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
옥관	 故이현주 (1957~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및 직위 : 前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 주요 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부터 한국도서관협회에 재직하며 대한민국도서관법 제정 및 국가도서관 정책 개발, 공공도서관 수 확대 전략 수립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도서관 문화창달에 기여하였으며,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민 행복과 국위 선양에 기여함



훈격	성명(생년)	주요공적
옥관	 송영숙 (19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및 직위 : (주)한미약품그룹 회장 ○ 주요 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한국최초의 사진미술관인 한미사진미술관을 개관하여 133회 전시하였으며, 20여년간 사진작가를 대상으로 창작·전시활동을 지원하고 소장품 수집, 출판 및 교육사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 사진문화의 지평을 넓히고,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슈발리에장을 수훈하는 등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
	 박문태 (19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및 직위 : 울산중구문화원 원장 ○ 주요 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부터 울산시 중구문화원 이사, 부원장을 거쳐 2016년부터 5대, 6대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숙원사업인 독립된 문화원 원사 건립, 세시 풍속 복원, 민속축제 행사 주관 등 향토문화의 개발·보급 등으로 문화 예술향유 기회 제공 및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에 기여함
	 故오승철 (1957~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및 직위 : 前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 주요 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1년 신춘문에 시조 당선 이후 42년간 시조 창작활동과 후학 양성에 힘써왔으며, 서귀포문인협회장과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을 역임하면서 제주지역 문학진흥 및 제주어문학작품 발표를 통한 제주어 지키기에 앞장서는 등 제주지역 문학저변 확대에 기여함
	 방귀희 (19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및 직위 :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 주요 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의 장애 속에서 방송작가, 대학교수, 장애인예술 단체장 등으로 장애인 예술인 정책 개발과 장애인 예술인 권익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장애인문학지 <숫대문학>을 발간하여 25년동안 100호 발간하면서 장애인인 발굴 및 장애인문학 장르를 개척, 미국스탠포드대학교 도서관의 연구자료로 활용되는 등 장애인문학 국제화 및 학술적 토대를 마련에 기여함
	 박제유 (1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및 직위 : (주)제이유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주요 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여 년간 서울창업허브 등 공공건축물 설계와 클래식 전용 콘서트 홀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등 다수 건축물 설계로 예술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한국건축가협회장과 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을 역임하며 예술로서의 건축의 역할과 가능성을 확장하고 건축문화예술의 대국민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한국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함

□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 5명

훈격	성명(생년)	주요공적
대통령 표창	 박선자 (19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및 직위 : (사)강릉예총 회장 ○ 주요 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동계올림픽 <월화전>, 창작공연<고무줄 언니> 총감독 역임 등 국제 행사와 전국행사 공연을 선보여 예술가의 활동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강릉예총회장을 비롯하여 한국예총 강원도지회 감사, 강릉시립교향악단 운영위원, 강릉국제 영화제 이사로 활동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
대통령 표창	 윤후명 (본명 윤상규) (19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및 직위 : 소설가 ○ 주요 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7년 등단하여 56년 동안 <빙하의 새> 시, <산역> 소설, <윤후명 소설 전집> 등 다수의 작품을 발간하며 한국의 대표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넓히고 삶의 본원적 문제를 탐구하는 서사를 통해 한국문학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함
대통령 표창	 이 배 (본명 이영배) (19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및 직위 : 작가 ○ 주요 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여년간 '숯'이라는 재료와 흑백의 서체적 추상을 통해 동아시아 전통과 현대미술의 역사를 바탕으로 수묵전통세계를 재창안한 작품을 국제 무대에 선보이고 있으며, 1989년 도불 이후 서양미술재료 대신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재료인 '숯'을 사용해 드로잉, 캔버스,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활동을 펼치며 공로를 인정받아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을 수훈하는 등 한국미술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함
대통령 표창	 박창수 (19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및 직위 : 더하우스콘서트 대표 ○ 주요 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로 2002년부터 하우스콘서트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21년간 900회 이상(4천여명)의 공연을 통해 전에 없던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제시하고 작은 음악회의 가능성을 실천을 통해 보여주었으며, 지속가능한 공연환경인 하우스콘서트를 통해 클래식, 국악, 재즈, 현대무용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실연자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활성화 및 기초문화확산에 기여함
대통령 표창	 최용훈 (19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및 직위 : 극단 작은신화 대표 ○ 주요 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창작연극을 대표하는 연출가로서 37년간 <김치국씨 환장하다>, <똥날>, <왕자와 거지> 등 연극, 뮤지컬 200여편 작품을 발표하며 공연 예술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1993년 대전엑스포, 2002년 한일월드컵, 2016년 서울연극제 등의 예술감독을 역임하며 연극계 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

□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 7명**

훈격	성명(생년)	주요공적
장관 표창	 유희경 (1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및 직위 : 위트 앤 시니컬 대표 ○ 주요 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춘문에 시 부문으로 등단하여 2020년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시인으로서, <문학주간>, <다음시페스티벌>, 시인과 뮤지션이 함께 참여하는 낭독회 등 실험적인 문학적 콘텐츠 발굴과 독자와의 소통을 통해 독자들의 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함
장관 표창	 정다혜 (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및 직위 : 공예가 ○ 주요 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공예의 역사와 가치, 작업 과정의 섬세함과 유연함 등을 표현하는 젊은 작가로서, 2022년 LOEWE Foundation에서 주관하는 공예상에 '성실의 시간'을 출품하여 최종 30인에 선정되었고, 최종 1인으로 한국인 최초 공예상을 수상하며 한국 공예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함
장관 표창	 강우현 (19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및 직위 : (주)아키후드 건축사사무소 대표 ○ 주요 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아키후드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한 이후 '틈과 경계', '친숙함과 색다름' 등을 관심있게 다루고 있으며, 대지와 건축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 탐구하고 있음. 건축가로서의 잠재적 역량과 독창적이며 완성도 높은 작품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진주상상리메이크센터 설계공모에 당선, 2022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 등 우수 건축물 설계를 통해 한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함
장관 표창	 임윤찬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및 직위 : 피아니스트 ○ 주요 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제16회 반클라이번 국제피아노 콩쿠르 역대 최연소 우승(만18세), 신작 최고연주상, 청중상, 대회 3관왕을 수상하였으며,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2022년 올해의 공연 10편 선정, 2022 국가브랜드대상 예술부문 대상, 영국 클래식FM이 발표한 30세 이하 라이징 스타 30인에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클래식 위상 제고에 기여함
장관 표창	 안은경 (19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및 직위 :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수석단원 ○ 주요 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수석단원으로 활동하는 차세대 연주자임. 정규음반 <안은경 Purity> 발표, 2011년 월간 객석의 차세대 유망주 10인 선정되었으며, 드라마 '해를 품은 달', '마의' 등 OST 참여,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 폐막식 태평소 연주 등으로 국내외 국악애호가들의 지평을 넓히고, 전통예술 보존과 창작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

훈격	성명(생년)	주요공적
장관 표창	 이철희 (19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및 직위 : 극단 코너스톤 대표 ○ 주요 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연극배우로 데뷔 후 제4회 벽산희곡상(2014), 제1회 서울예술상 최우수상(2023)을 수상하며, 현재 극작가, 연출가,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패러디'와 '충청도방언'을 활용한 '충청도식 연극'을 개척하고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 등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아우르는 한국연극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기여함
장관 표창	 김정훈 (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및 직위 : 씨투댄스컴퍼니 대표 ○ 주요 공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무용 안무가로 2010년 신인무용콩쿠르 최연소 2등상, 2011년 독일 국제무용콩쿠르 Tanzolymp에서 1등상, 2017년 <나를 바라보는 너> 작품으로 부산국제무용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씨투댄스컴퍼니 창단 이후 <The Room>, <새빨간거짓말> 등 작품을 선보이며,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안무가로 국내외 한국 현대무용을 알리는데 기여함

□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감사패) : 5명

어버이 (성별/생년)	선정 사유 및 예술인 자녀 주요 약력
<p>곽진숙 (여/1973)</p>	<p>중증지적장애를 가진 국악예술가 이지원을 8살 터울의 비장애인 동생 이송연과 함께 국악민요자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음악의 길을 열어줌. 소외계층을 찾아 문화와 예술의 위대한 가치 창출 및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하여 수많은 공연, 방송 및 해외공연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여 대한민국 장애 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가족에게 희망을 들려주는 국악예술인을 키워낸 조력자임</p> <p>이지원(여/2000) 국악예술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교육청 장애인예술단원, 발달장애인 최초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전수자 • 비장애인 동생과 국악민요자매로 공연, 방송, 해외공연 등 활동
<p>민겸식 (남/1942)</p>	<p>아들의 꿈이 게임시나리오 작가, 연극배우, 기계체조선수에 이어 현재 공연 연출가가 되기까지 긴시간 동안 지지해주고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창고를 아들에게 연습공간으로 내어주는 등 아들이 일상적이면서도 따뜻한 시각으로 작품을 만들어 내어 작품성, 예술성, 대중성을 모두 아우르는 극작가이자 연출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침반이 되어줌</p> <p>민준호(남/1997) 연출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배달서비스 간다 대표 및 상임연출가 • 연극 <완벽한 타인> 등 다수 연출 및 30여편 공연 제작
<p>서춘자 (여/1936)</p>	<p>1953년 평교사로 시작해 1972년 교감승진의 자격을 받았으나 위희경의 예술적 재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평생 삶의 사명으로 생각했던 교육자의 길을 접고 자신의 삶보다는 자녀들의 그림자가 되는 삶을 선택함. 평생 대중가수 위일청과 국악인 위희경을 대중음악과 전통음악인으로 자신의 예술세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타의 모범을 보여줌</p> <p>위희경(여/1973) 전통예술인 / 위일청(남/1955) 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희경)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지도단원,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학생부 최연소 장원('86년), 가족음악극 '마당을 나온 암탉' 주역 등 다수 공연 • (위일청) <내일이 찾아와도>등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그룹 서울패밀리 멤버, 현재는 솔로가수
<p>윤순모 (여/1931)</p>	<p>한국디자이너 협회 초창기 멤버로 디자이너 활동을 하신 윤순모님은 화가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열정과 노력으로 양희은과 양희경 자매가 예술가로 성장하는데 토양이 되어줌. 예술인 자녀를 키우면서도 2014년 본인의 개인전 '엄마의 꿈을 열기도 하여 예술가 두 딸을 둔 어머니의 독립적이며 개성적인 삶은 귀감이 되고 있음</p> <p>양희은(여/1952) 가수/ 양희경(여/1954) 배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희은)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 라이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등 다수 국민 애창곡 가수 • (양희경) 연극 배우, TV 드라마 및 영화 배우, <순이삼촌>, <년센세이션> 등 다수 작품활동
<p>장현실 (여/1964)</p>	<p>정은혜 작가가 예술가로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강요하거나 가르치시는 일이 없이 늘 기다려준 어머니의 역할을 해줌. 동양화과를 졸업한 장현실님은 다운 증후군 장애를 가진 딸을 세상에 한발자국이라도 나오게 하기 위해 화실에서 그림을 접하게 했고 24살에 첫 그림을 그리게 하였음. 예술활동을 통하여 예술가 삶을 갖게 해주고 발달장애인이 예술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줌.</p> <p>정은혜(여/1990) 작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 출연 • <그대로그가 좋아 니얼굴>, <은혜씨가 사랑하는 것들> 등 다수 작품 전시